

# “충효동에 명품 철쭉분재공원 만들고 싶어요”

### 30년간 분재 4000여점 모은 ‘현진분재원’ 김종복 대표

“내 고향 충효동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품 철쭉 분재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에 이색 분재원이 있다. 어느 분재원과 달리 나무를 팔지 않는다.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분재가 생기면 자신의 것과 물물교환을 한다. 현진분재 김종복(60) 대표는 고집스럽게 화분을 늘려나가고 있다. 벌써 30년째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크고 작은 분재가 4000점에 달한다.

분재 마니아들은 보통 소나무, 소사나무, 동백 등 다양한 품종을 선호하지만, 그는 철쭉만 탐닉했다. 특히하게도 그가 키우는 품종은 일본산 철쭉이다. 화려한 꽃과 나무의 자태에 반했기 때문이다.

현진분재원은 그의 명품에만 찍혀 있는 상호다. 그의 분재원은 특별한 간판도 없어 비닐하우스 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철쭉이 만개하는 5월이면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곤 한다.

“철쭉 꽃은 향기가 없지만 그 자태와 화려함은 그 어느 나무도 따라오질 못해요. 꽃이 피고 지는 등 변화가 있는 철쭉이 좋아요. 개화기가 무려 1개월 이상 가는 철쭉도 있지요. 꽃이 지고나도 수형(樹形)의 아름다움을 사계절 볼 수 있어요.”

현진 분재원은 비닐하우스 전시장 3동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철쭉분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옛 자리인 충효동에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다.

**나무 팔지 않고 물물교환  
화려한 꽃 반해 일본산 철쭉만 고집  
외도 해상 식물공원 벤치마킹  
분재 1만개 확보 관광자원화  
매년 일본 방문 관리법 배우기도**

“충효동 원효계곡 인근에 땅을 사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만들고 분재원도 확장할 생각입니다. 철쭉 분재 1만개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철쭉 공원의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철쭉 분재에 반해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아끼워서가 아니라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명품 철쭉 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는 곳은 경상도에 있는 외도다. 외도 보타니아는 푸른 남해 바다로 경관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해상 식물공원이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그는 적잖은 금액을 분재 관리에 쓰고 있지만, 금액은 합구했다. 주변에서는 8억여원은 거뜬히 들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팔지도 않을 분재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 4명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가족들은 김씨의 못 말리는 분재사랑을 인정해주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됐다 싶은’ 철쭉의 자태를 보면



김종복 현진분재 대표가 30여년 동안 관리해온 철쭉을 설명하고 있다.

김탄이 절로 나온다. 가장 아끼는 철쭉은 장수보라는 품종이다. 작은 분재지만 몸통과 나뭇가지를 보면 수백년 된 측소판 마을 정자나무를 보는 듯하다. 그가 보유한 철쭉 품종의 특징은 한 나무에 다양한 색깔의 꽃이 달린다는 것이다. 현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품종이 왜(倭) 철쭉이다 보니 매년 한 차례 이상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선진 분재기법과 관리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물만 주고 관리한다고 해서 분재가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품종에 관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죠.”

그는 산에서 나무를 캐다 화분에 심어 분재로 만드는 방식은 피한다. 묘목을 수입하거나

다른 분재원에서 구해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키운다.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꺾꽂이다. 철쭉이 자생력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봄에 왕성할 때 가지를 꺾어 썬이 나도록 화분에 심는다. 뿌리내림을 좋게 하기 위해 토양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쓴다. 나무 가지를 비틀거나 움아매 수형을 만드는 것도 가끔적 자체한다. 나무의 성장 정도를 봐서 적당히 가지치기 등을 해 수형을 만든다고 한다. 나무의 본성을 이용한 분재법이다.

“나무의 바탕을 살려 최대한 자연에 가깝도록 키워야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분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습니다.”

/\*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다문화 청소년 어울림 캠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복)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도농협동원수원(원장 권갑하)에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울림 여름캠프’ 2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특별과정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남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학생 등 70명이 참여했다. 한국고원대 등 대학생 멘토들도 동행해 참가자들의 지어재발견, 진로탐색, 소망 담기 등 자기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도왔다.

또 안양FC 임은주 단장의 ‘진로 찾기’ 특강도 열렸으며, 우리 농업·농촌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 유지재 대표와 함께 하는 주제토론 ‘내 꿈을 펼쳐라’도 진행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전남산림조합, 산림사업 추진 토론회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8일 장흥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장과 산림청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분야 추진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이마트-광주MBC 나눔문화 확산 협약



이마트(광주권역)와 광주MBC,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는 9일 오전 건전한 기부문화와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 손해보험협회, 완도경찰서 교통안전물품 전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9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완도경찰서 관내 생활안전센터(소장 신경남)에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 광주 승덕고 4년째 나눔문화 실천 읽은 책 되팔아 132만원 이웃돕기

광주 승덕고등학교(교장 윤세용) 2학년 학생들이 독서토론회 뒤 읽은 책을 되팔아 얻은 돈을 8월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달,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4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승덕고 학생들과 장광재·황현규 지도교사는 관산구 첨단 2동 주민센터를 방문, 수익금 132만 9000원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써달라며 서상헌 2동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승덕고 생활관 정승학사 학생들은 올해도 1월부터 매주 1회 책을 정해 사서 읽고, 토론회를 거친 다음 친구들에게 책을

되판 돈을 모아 이날 전달 기금을 마련했다.

독서토론회를 주도한 신경민 학생은 “토론회 도서인 ‘살아 있는 것도 나눔이다’는 책을 읽고 평소 나눔과 실천 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우리의 작은 활동이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건넨 성금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거쳐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남부대 산단캠퍼스 조성사업, 2년 연속 ‘최우수’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산단캠퍼스조성사업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사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다.

남부대는, 해당 사업과 관련, 산학 일체화 캠퍼스를 지향하는 산학협력 진화형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한 지역수요형 인력양성 산학협력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남부대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산업체 참여형 교육환경기반 구축 등 사업을 추진했다. 또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 협력전략 등 지역사회와 산업체, 대학을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대는 지난 2015년 7월 교육부가 지원하고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평가하는

산단캠퍼스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남부대 정병호(자동차공학부) 산단캠퍼스사업단장은 “교육, 연구개발, 고용이 연계되도록 산단캠퍼스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일체화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상생하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과 지역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게 됐다”고 말했다.

/\*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인사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청 총경급 ▶ 기획운영과장 안두솔 ▶ 구조안전과장 서정원 ▶ 부안해경서장 박상식 ▶ 목포해경서장 김정식 ▶ 여수해경서장 송창훈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임형철(정광교 교장)·김옥자씨 장남 성열군(군법무관) 오현곤(사업)·이수영씨 장녀 유미양(차과전문의)=19일(토)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파로연=12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S타워웨딩컨벤션 5층 연회장.

### 동창회

▲재경 장흥 용산중학교 제10회 동창회=25일(토) 오후 6시, 명 돼지갈비(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문의 010-2363-0124.

### 알림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율향

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반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모집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형·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원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 부음

▲김남승씨 별세 김선영·순화·미경·혜정씨 부친상 최유미씨 시부상 정두철·표정호·박성복씨 부부상=발인 10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최침묵씨 별세 정동기·대기·향기·현기씨 모친상 박근자·이희숙·임성숙·양현주씨 시모상=발인 10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b>201호 故강대우 남(남/87세)</b> 子/子婦: 강홍호/이귀례, 장훈/이진숙, 신기/신강원 女/婿: 김미영/안수환, 미란/신강호 孫: 강정호, 생민, 주아, 주영, 유민, 연희, 정은, 지은, 생희, 은우 ●발 인: 8월 10일 ●연락처: 227-4381 ●장 지: 영락공원	<b>301호 故백종애 남(여/87세)</b> 子/子婦: 김기호/노연희, 용호/김정희, 선호/유금숙 女/婿: 김안숙/이원환, 연영/임정민 ●발 인: 8월 10일 ●연락처: 227-4382 ●장 지: 침실유곡원
<b>401호 故김동일 남(남/85세)</b> 子/子婦: 김철호/양미순, 철만, 철석 女/婿: 김길자, 김순/정완기, 김희/이민순 孫: 김진영 ●발 인: 8월 10일 ●연락처: 227-4383 ●장 지: 영락공원	<b>402호 故박재복 남(남/87세)</b> 子/子婦: 박광호/박선자 女/婿: 박연미/박종용 孫: 박영구, 영효, 진우, 철현 ●발 인: 8월 11일 ●연락처: 227-4314 ●장 지: 침실유곡원
<b>102호 故임철순 남(여/89세)</b> 子/子婦: 김영훈/박경숙, 상운/이미자 女/婿: 김순환/윤성희 ●발 인: 8월 1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재길 www.mykumho.com